

Style 1 조선일보

MARCH 2020
vol.202

SUNDAY 15/03 VILLA,
MILAN 12PM





CHANEL

FINE JEWELRY

COCO CRUSH

KEIRA KNIGHTLEY WEARS A COCO CRUSH RING AND BRACELETS
IN WHITE AND BEIGE GOLD WITH DIAMONDS.



18



12



20



토즈의 2020 S/S 시즌 컬렉션은 우아하고 모던하다. 부드러운 컬러 팔레트에 플리츠 디테일을 더한 웨어와 최상급 가죽으로 선보이는 타운코스 T백, 그리고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산 크로스파노 스타킹 타이퍼드 실루엣 슈즈 등 컨템퍼러리 스타일로 시즌 트렌드를 초월한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문의 3438-6008



08

- 11 **LAYERING GAME** 하나보다 여럿이 낫다. 함께하면 더욱 돋보이는 컬러조합 워치와 브레이슬릿.
- 12 **FACING EVERYDAY CATASTROPHES** 마치 중앙론이 팽배한 세기말 같은 분위기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중시도 주저앉았다. 마침 미술 시장도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트 바젤과 UBS가 발간하는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미술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 줄어 들었다. 하지만 '필리는' 예술만 있는 건 아니다. '재상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자유를 도와주기도 하는 예술의 힘을 기억해보자.
- 14 **PRECIOUS GARDEN**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식물 모티브 주얼리 정원.
- 15 **THE MASTERPIECE** 메종이 지켜온 우아한 디자인과 동시대 문화 예술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결합된 멜보 이그조티브 컬렉션.
- 16 **AIN'T GOT TIME FOR THAT** 편안함과 시크함으로 눈길을 끄는 브랜드 '할몬앤홀든(Harlan + Holden)',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알렉산드라 피치네타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패션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지난 2월, 현지에서 만난 매력적인 그녀와 눈을 친절한 인터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브랜드 스토리.
- 17 **UNVEILING THE STORY**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알렉산더 맥퀸의 2020 S/S 컬렉션 스토리 솔더백.
- 18 **MUCHA & SARAH BERNHARDT** 사라 베르너르는 벨 에포크 시대가 낳은 불세출의 아티스트로 '사회현상'이나 다름없었다. 단순한 스타 여배우를 넘어 당대 최고의 셀럽이자 사회계의 여왕 같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당연지사. 그녀는 프랑스를 넘어 전 유럽과 미국에까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여성에게 선구자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사라 베르너르가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벨 에포크를 상징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를 스타로 등극시킨 주인공이라는 점도 한몫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세기적인 협업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 20 **NEW MEN** 루스한 실루엣, 비비드한 컬러, 자유분방한 믹스 매치... 그 어떤 경계도 뛰어넘는 2020 S/S 시즌 남성복 컬렉션.
- 28 **그들은 왜 조끼를 입을까** 현대사회에선 재킷과 바지를 조끼와 겹쳐 입는 수트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끼를 입는데 주저함이 없는 영국인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일까?
- 29 **SHOW YOUR FLAG AT FLORENCE** 이번 시즌 파티 워모(Fatti Uomo)의 주제는 것발. 14세기 상복으로 둘러싸인 포르테자 다 바소(Fortezza da Basso)는 세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모라타이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관점과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 30 **EDITOR'S PICK** 일상에 활기를 더해줄 스프링 뷰티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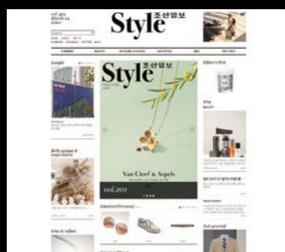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02 March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드립니다. 혁신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ublic Entree

오버스티치 디테일이 가미된
 테크니컬 개버딘 소재의
 핑크 컬러 스트레이트-컷 재킷.



끊임없는 혁신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T 모티브 다이아몬드 감싼 화산암 마더오벌 펠 펜던트가 돋보이는 티파니 T 걸터 투 서클 펜던트 가격 미정 **타파니**. 1980년대 불가리 해리엇지 투보가스 초카에서 영감을 얻어 스타드를 다한 불가리 비제로원릭 밴드 링 **9백만원대 불가리**. 31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퐁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스몰 링 가격 미정 **사실 화인 주얼리**. 오디오 케이틀 자를 덮은 오파니 모티브와 라운드 체인을 결합해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화이트 골드 액 트라를 랩 1천만원대 **부쉐론**. 크기가 다른 2개의 옐로 골드 링크와 이코아 진주의 배치가 감각적인 핀인 링크 이어링 4백10만원대 **타사키**. 에디터 **이예미**

Jewel
SIMPLE FINEST

간결하지만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하이 주얼리 매종의 데일리 주얼리 5.



Fashion
PRETTY EDGE

봄기운을 머금은 작은 지갑 리스트.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탈리아 옐로 소가죽으로 재해해 특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탈착 가능한 미니 체인 스트랩으로 대체롭게 연출 가능한 클러머 빈지갑 1만8천원 **조이 그라이스**. 허우스를 상충하는 홀스빗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구찌 1965 홀스빗 카프 스킨카드 케이스 64만원 **구찌**. 최상급 악어 가죽으로 제작된 고급 카드 케이스 1백40만원 **통 포드**. 카드는 물론 지폐와 동전을 수납할 수 있는 소형 숏어지갑 49만원 **프라다**. 세미블린 영색 가죽으로 부드러운 색감을 입힌 콜로에 C 3단 스몰 지갑 41만원 **콜로에**. 에디터 **이유이**

모토그라피 화승에 어스틴트 조스회



Living
ON THE DESK

워킹 타임이 즐거워진다. 패션을 입은 사무용품.

(왼쪽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려하고 이국적인 프린트의 실크 커버 노트 10만원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은 크기로 이루어져나 놓아도 오뎅이처럼 귀엽게 일어난다. 옐로 컬러 베레니아가 소가죽을 매치한 펜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미카미우스 얼굴을 영보성 처리하고 월드 디즈니의 서명을 프린트한 시피아노 레더 소재 GC 월드 디즈니 노트 #146. 내부는 실버 컷 테두리와 골드 컬러 북마크로 완성했다. 12만원. 미아스터스틱 플래티넘 코팅 만년필 74만원 모두 **몽블랑**. 메탈에 베레니아가 소가죽을 매치한 펜 인크 카트리지 케이스 40만원대 **에르메스**. 50ml 병 인크 4만9천원 **몽블랑**. 소네트 푸제르 실버 GT 볼펜 45만원 **파카**. 사용할수록 손때가 묻으며 더욱 멋스러워지는 소가죽 펜 케이스 50만원대. 일루미늄 펜 1백5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평화의 비둘기(The Dove of Peace) 컬렉션에 피블로 파카스의 이미지를 더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파카스 도브 만년필 3백29만원 **에스.티. 듀중 파리**. 해리포트 더 한정판 노트 3만9천9백원. 시각형 클리 볼펜 각 9천9백원 모두 **몰스킨**. 인크 번짐이나 번침이 적은 하이드로 노트. 노트에 펜을 고정할 수 있는 펜캡, 영한이나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메모 포켓을 장착했다. A5 사이즈 오스벨루 3만4천원. A6 사이즈 다크 퍼플 2만8천원. 독일 디자인 리처드 슈파가 디자인한 삼각형 보더가 특징인 다이어로그1 무광 티타늄 볼펜 35만원 모두 **리미**. 에디터 **장려훈**

모토그라피 화승에 어스틴트 조스회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Digital Life
카메라의 모든 것을 체험하라! 캐논의 새로운 플래그십 매장

캐논 브랜드 캐논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롭게 마련했다. 새 주주사 강남구 봉은사로 217 블루스퀘어 빌딩로 확장 이전한 캐논올렉스 플래그십 매장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5층 규모로, 제품 구매는 물론 A/S 서비스, 아카데미, 그리고 갤러리 등 문화 활동까지 이루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기획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이 자리한 1층에는 고객들이 제품을 몸소 체험하고 구매까지 하도록 해 편의성을 더했다. 플래그십 카메라 EOS-1D X Mark III 같은 최신 제품뿐만 아니라 캠코더, 프린터까지 캐논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 2층은 캐논의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기존 컨슈머 제품을 넘어 사네마 라인업, 4K 모니터, 다목적 카메라, CCTV, 라지 포맷 프린터 등 다채로운 제품군을 전시한다. 또 '인미더' 줄을 새롭게 살펴볼 방문객들이 1인 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경험해볼 수도 있다. 특히 기존에 없던 프로 유저를 위한 서비스 공간인 CPS 리운지가 3월 중 들어설 예정이다. 3층은 직영 사모트 센터에 입고된 제품의 수리와 점검이 이뤄지는 공간, 4층은 사진 교육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캐논 갤러리에서는 사진 작가들의 사진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그리고 캐논 갤러리 내 별도 공간에는 사진을 굿즈 형태로 소장할 수 있도록 사진 사진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플래그십 'Good's Photo Store'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3월 말까지 고객 대 상으로 제품 할인과 더불어 시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02-6719-8700 운영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영원의 숲(Eternal Forest)>展

내러티브는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세계와 함께하는 예술 신작을 인연 영종도에서 즐길 기회가 찾아왔다. 백남준을 위시해 앤디 워홀(Andy Warhol),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조지 콘도(George Condo), 헤르만 바스(Herman Bas), 류웨이(Liu Wei), 백남준,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등 9명의 세계적인 작가들 '숲'을 테마로 한 이번 전시 <영원의 숲(Eternal Forest)>이다. 지난달 27일 막을 올린 이 전시는 인천 영종도에 자리한 리조트 파라다이스 내 전시 공간인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오는 5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각각의 작가들이 그려낸 개성 넘치는 세계가 숲이라는 상징 속에 펼쳐지고, 또 다른 차원의 더 큰 숲을 이루는 것은 콘셉트를 지닌 이번 전시는 고유한 빛과 열에서 시작해 봄, 여름, 가을에 이르는 계절의 순환 같은 흐름을 담고 있다. 숲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이야기가 꿈틀대는 이상향의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공간을 뜻한다고,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은 "각 작품이 품고 있는 서로 다른 세계가 모여 인간과 삶에 대한 다채로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전시라고 소개하며 "문화이냐 영화의 서사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 전시장에서 교차하는 여러 이야기들 감상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슨트 투어는 진행하지 않는다. 일폰스 무하(Andreas Mueha)와 <플루즈 로트록프> 등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전시장 내 손소독제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문의 1833-8855 홈페이지 www.p-city.com 에디터 **고성연**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캐시미어와 코튼, 두 가지 소재를 혼용한 카디건 2백70만원대 **에르메스**.

블루 스웨이드 코미노 슈즈 66만원 **토즈**.

핑크 색의 타이 가터 **미켈 보스 맨**.

카프 스킨 벨트 57만원 **실바토레 파라가모**.

그레이트 카프 스킨 푸시어 에어팟 케이스 50만원대 **다음 맨**.

VLTN 레퍼원의 카프 스킨 반지갑 11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그린 코튼 니트 베니 89만원 **구찌**.

초경량 금속 소재를 적용한 오퍼시리즈 프라임로 매그니피코 선글라스 80만원대 **루이 비통**.

스페르미스트 유황염 아카사이트 미세염 **에디터 아우미**.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 소재 보디 파우치 2백4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for him Selection

생동감 넘치는 비비드 컬러가 전하는 긍정 에너지.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 리모와 여행용 키트. 38x35cm, 81만원 **리모와**.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카프 스킨 나노 바게트 1백 65만원 **헨디**.

테크니컬 캔버스 소재로 기능성을 살린 스니커즈 1백만원대 **에르메스**.

위트 넘치는 슈즈 모티브 카프스 링크 23만원 **폴 스미스**.

베르가모트와 바질, 아이리시와 파출리가 아우러져 시원하고 상쾌한 **존바비투스** 아티산 블루, 125ml, 11만3천원 **존바비투스**.

- 에르메스 02-542-6622
-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 실바토레 파라가모 02-3430-7854
-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3
- 토즈 02-3438-6008
- 루이 비통 02-3432-1854
- 다음 맨 02-3480-0104
- 보스 맨 02-515-4088
- 구찌 1577-1921
- 리모와 02-546-3920
- 헨디 02-2056-9023
- 폴 스미스 02-690-3456
- 존바비투스 080-363-5454
-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리스 02-2052-8822

스트라이프 코튼 폴로 스웨터 99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리스**.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BOSS.COM

BOSS
HUGO BOSS



for her Selection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밝아지는 크레용 컬러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브랜트 이 시트로 전연들
 장황한 브레이슬릿
 69만원 **에르메스**.

파베 세팅한
 스와로브스키의 딥 블루
 유색석이 광채가 어우러진
 펜던트 17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건고함을 자랑하는
 스가죽 그린 슬림백 슈즈
 93만원 **토즈**.

구조적인 형태의
 플렉시 아이팅 49만원
삼베토레 페라기오.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라틴 원피스 2백90만원대
로로피아나.

틴트 컬러 에어비이어
 선글라스 20만원대
엠펙리오 아르마니
 by 룩스타카.

신뜻한 옐로 컬러가 돋보이는 양가죽
 힐 95만8천원 **파비어나 팔리피**.

고유한 FF 로고를
 형상화한 플렉시
 글라스 아이팅
 85만원 **펜디**.

내려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양가죽 1083백, 38X21cm,
 가격 미정 **가방시**.

스워로브스키의 유황성
 아사시톤 이베형 에티켓이슈이

- 구찌 1577-1921
- 사넬 080-200-2700
- 지형시 02-546-2790
- 보타가 베루타 02-3438-7682
- 토즈 02-3438-6008
- 에르메스 02-542-6622
- 스와로브스키 02-514-9006
-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 삼베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 로로피아나 02-546-0615
- 프라다 02-3438-6045
- 룩스타카 02-501-4436
- 파비어나 팔리피 02-6960-0843
- 펜디 02-2056-9023
- 로에베 02-6905-3470

오렌지 컬러를 입힌 양가죽 코트 5백90만원대 **프라다**.

layering game

하나보다 여럿이 낫다. 함께하면 더욱
 돋보이는 찰떡궁합 위치와 브레이슬릿.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로) 18K 핑크 골드와 스틸 케이스, 다이아몬드 세팅이 어우러진
 22X30mm의 스몰 사이즈 맨더드 카르띠에 주얼리 워치 1천3백만원대, 반쪽
 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18K 핑크 골드 스몰 사이즈 클래쉬드 카르띠에
 브레이슬릿 8백만원대, 기존 모델보다 얇은 18K 핑크 골드 뉴 러브 브레이슬릿
 5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타파이즈를 세팅한 티파니 T 칼러 와이어 브
 래이슬릿 4백15만원, 스틸 케이스에 티파니 블루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티파
 니 1837 메이카스 워치 4백1만원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8mm의 로즈 골드 케이스, 에-라벨과 화이트 및 로
 즈 골드 조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는 레디 아멜 품 데 자르

로 주 워치 1백5천만원대,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모티브로 장식한 핑크 골드
 베를리 클로버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모두 **반올리프 아펠**, 문의 1668-1906

오트 쿼터 직물의 주름을 형상화한 옐로 골드 카르띠에 그로그렛 라이트 밴글
 6백만원대, 21X35.5mm 사이즈의 바티컬 고드롬 모티브 미디엄 스틸 케이
 스에 사파이어 카보숏 크라운을 더하고 페이턴트 카프 스트랩을 매치한 리틀레
 워치 4백만원대, 방동 광장의 자갈길에서 영감을 받은 핑크 골드 카르띠에 클루 드
 파리 라이트 밴글 8백만원대 모두 **부시넬**, 문의 02-772-3508

기계식 칼라버 12.1을 탑재하고 블랙 세라믹을 입은 J12 워치 7백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에 총 8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천2백
 만원대 모두 **사넬 워치 앤 화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에디터 장윤

facing everyday catastrop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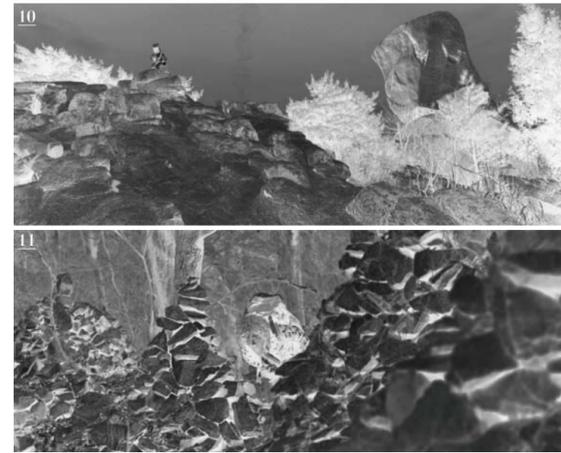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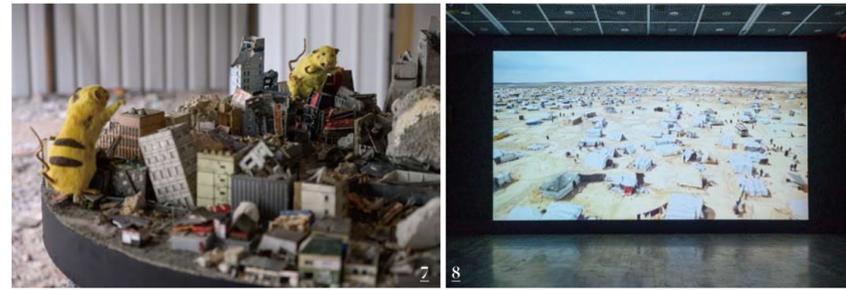
마치 종말론이 팽배한 세기말 같은 분위기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증시도 주저앉았다. 사실 밀레니엄을 앞두고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새로운 세기에 대한 설렘도 공존했다. 그런데 21세기는 초반부터 '9·11 테러'를 맞이했고, 그 뒤로도 온갖 재해와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분위기가 움츠러들었다. 마침 미술 시장도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트 바젤과 UBS가 발간하는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미술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문화 예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올 상반기 성적이 좋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떨리는' 예술만 있는 건 아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치유'를 도와주기도 하는 예술의 힘을 기억해보자.



연초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트 페어를 보러 갔을 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시내에 있는 한 미술관을 찾았다. 화려한 외양이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흔히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현대미술을 진중하면서도 대중에게 흥미롭게 소개할 줄 아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Taipei). 날씨가 꽤 우중충한 날이었는데, 마침 진행 중인 전시 제목도 스산함을 풍겼다. <Co/Inspiration in Catastrophes>. 설명을 들어보니 이 전시를 기획한 주요 계기는 대만에서 1999년 가을에 일어난 대지진 발발 20주기, 반세기 만의 대홍수(2009) 발생 10년을 맞이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불과 1년 전 터진 고속열차 탈선 사고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예술적인 치유의 힘을 모아보고자 함이었다고. 물론 전시 콘텐츠는 대만에 국한하지 않았다. '이동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한 마을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라도 쉽사리 국경을 넘어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나 여차하면 재난이란 인종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까. 난민, 전쟁 같은 인류사의 비극을 다룰 때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아이웨이웨이(Ai Weiwei)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인재(天災)든, 천재(人災)든 각종 참사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 전시를 보고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발 '코로나 약재' 소식이 들려왔고, 이는 꽤 빠르게 지구촌을 강타했다. 사실 재난을 소재로 한 전시 자체가 '뉴스'는 아닐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온갖 재난에 둘러싸인 '위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재난을 '경고'하고, 그로 인한 '상처'를 보듬고자 한 최근 전시들을 소개한다.

인류의 비극을 속고해볼 수 있는 현대미술 전시들
 지난달 막을 내린 MOCA 타이베이의 전시는 미술관 앞마당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설치 작품으로 시작된다. 언뜻 평범한 고기잡이배처럼 보이는 두 척의 소형 어선이 거리를 두고 놓여 있는데, 하나는 2011년 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대만의 한 해안가 마을로 떠밀려 온 돛단배이고, 또 하나는 홍콩의 일명 '소환법(법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상징하듯 색색의 메모지가 잔뜩 붙

어 있는 작은 배다. 전자는 무자비한 자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천재, 후자는 인간이 야기한 비극인 인재로 의미심장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이고 남미, 중동,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발발했던, 혹은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을 멎게 하고 있는 각종 재난의 축소판이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진다.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망명 작가 아이웨이웨이는 국제적인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 5점을 선보였는데, 이 중에는 '오디세이(Odyssey)'처럼 시리아 난민을 상징적으로 다룬 디지털 프린트 작품도 있고, 글로벌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한 여정과 고통을 엮은 '휴먼 플로(Human Flow)', '이도메니(Idomeni)' 등의 영상 작품도 있다. 일본의 젊은 아티스트 그룹 침↑폼(Chim↑Pom)의 경우에는 지진이나 원전 사고 같은 처참한 재해, 그리고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도시 개발의 이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뤘는데, 이들의 대표작 '슈퍼 쥐도 이반에 전시됐다. 자본주의의 욕망 속에서 엄청난 크기로 자란 돌연변이 쥐를 애니메이션 캐릭터 파카츄처럼 보이도록 칠한 작품이다. 타이베이에서는 '디스토피'적인 도시 풍경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전시가 진행 중인데, 2016년 문을 연 복합 문화 공간 저트아트 뮤지엄(Jut Art Museum)의 기획전 <Paradise Lost - Gazing at Contemporary Urban Civilization and Its Metaphor>다. 존 밀턴의 대서사시 <실락원>에서 제목을 딴 이 전시는 인간의 야망이 빚어낸 문명의 변화무쌍한 면면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오는 4월 5일까지). 건축과



예술을 담는 것으로 유명한 이 공간은 전시장 입구에 놓인 검은 색조의 송전탑처럼 생긴 설치물부터 관람객의 눈길을 잡아끄는데, 일본 아티스트 이와사키 다카히로(Takahiro Iwasaki)의 <The Out of Disorder(Collapse)>라는 작품이다. 일본인들에게 처절한 충격을 안겨준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재로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담담하게 강조한다. 가공할 만한 천만 기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러모로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의 미래상을 그려본 전 시도 있다. 싱가포르의 아트사이언스 뮤지엄(ArtScience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2219: Futures Imagined>. 도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마리나 베이 샌즈에 자리한 이 미술관은 이름처럼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로 잘 알려져 있다. 2백 년 뒤 세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제목으로 차용한 이번 전시는 마치 연극의 1~5막처럼 서로 다른 소주제의 공간을 따라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을 특유의 디지털 센스를 살려 재입재에 맞게 만들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파장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까지 '실내'에 두는 미래의 집 안 풍경을 담은 작품 등 볼거리도, 생각할 거리도 많은 전시다.

누구를 탓하든 우리 모두의 참사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기획전이 지난해 개최된 적이 있다.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작년 여름에 진행된 <재난>이라는 전시다. 인류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래서 '일상의 일부가 재난이 되어버린' 듯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피로감, 그리고 낯설이 혼재된 다양한 감정의 양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했다. 고영미, 노순택, 민유정, 박경진, 송진희, 이보람, 장우진, 조경란, 하태범 등 한국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아픈 현실이지만 은유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잔혹 동화 같은 작품부터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날카롭게 포착해낸 다큐멘터리 사진,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재난의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망각하며, 안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비판적으로 담아낸 삽화 등 작가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표현하는 서로 다른 개성의 조화가 흥미롭다. 이 이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MMCA)

에서 열린 <MMCA 현대사 시리즈 2019: 박찬경 - 모임 Gathering>에서도 '재난 이후'를 얘기하는 작품이 돋보인다. 피폭 현장을 마을을 촬영한 작가의 사진과 방사능을 '가시화'한 일본 작가의 작품을 교대로 보여주면서 재난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후쿠시마, 오토레디오그래피를 비롯해 '석가모니의 열반'이라는 종교적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재난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뒤집어보도록 유도하는 영화 '늦게 온 보살' 등이 있다. 물론 작가들이 그저 재난의 참담함이나 슬픔 같은 비극적 정서만을 부각하는 건 아니다. '재난'에 대한 희망도 얘기한다. 일본 도쿄 롯폰기 힐스에 있는 문화 예술계 명소인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에서는 2018년 가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Catastrophe and the Power of Art>라는 제법 규모 큰 기획전이 펼쳐졌는데, 이름이 말해주듯 이 전시의 주제는 대재앙, 재해, 재난을 딛고 치유와 성장으로 이끄는 '예술의 힘'이었다. 이 글에서 앞서 언급한 침↑폼과 아이웨이웨이를 비롯해 일본 건축 거장 반 시게루(Shigeru Ban), 모나 하툼(Mona Hatoum),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élix González-Torres), 아이작 줄리안(Isaac Julien) 등 쟁쟁한 동시대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반전과 평화를 함께 외쳤던 남편 존 레넌이 작곡한 뒤에도 예술가로 꾸준히 활동해온 오노 요코(Yoko Ono)는 1969년 반전 시위를 연상시키는 'War is Over'라는 문구를 써넣은 페널, 부활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관객 참여형 작품 등으로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회복 탄력성의 미학
 인간의 회복 능력은 때때로 놀랍다. 재난 같은 큰 시련을 겪고, 또 견뎌낸 뒤 그 상흔이 아물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모두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경이로운 내면의 힘이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 같은 위기에 예도 늘 그것을 자랑한 삼아 창조적인 꽃을 피워낸 예술도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도와줄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을 높여려면 사회적 관계 맺기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자아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난 속에서 서로에게 '경고장'을 날리며 '날 탓'을 하고 '내 탓'을 차릴 기회를 엿보다 보는 냉정하게 현실의 공경에 맞서, 서로를 믿고 보듬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멀리 프랑스에서는 포입형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대형 전시가 곧 등장할 예정이다. 확산 대폭발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 3D 기술로 구현해낸 <폼페이(Pompeii)>가 이달 말 파리 그랑 팔레에서 막을 올린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장면은 물론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유적과 거리를 '구경'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이다. 부디 지구촌 곳곳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전시를 무사하게 보러 갈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 빨리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 **고성연**

7 일본 아티스트 그룹 침↑폼(Chim↑Pom)의 작품 SUPER RAT - Scrap and Build(2017). Photo by Kenji Morita.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JIN-TO Production 8 난민 문제를 다룬 아이웨이웨이(Ai Weiwei)의 영상 작품 Human Flow의 한 장면. 9 열광 불우인(Beng Lulan)의 설치 작품 'The Last Sight before Gone(2016). Courtesy of the Indigenous Peoples Cultural Foundation. 7~9는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타이베이)에서 최근 열린 <Co/Inspiration in Catastrophes> 전시 작품들. Courtesy of MOCA Taipei 10, 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MMCA 현대사 시리즈 2019: 박찬경 - 모임 Gathering>전서 선보인 2019년 작품 '늦게 온 보살'의 이미지. HD 영화, 흑백, 4, 14, 18, 55분. 작가 재량. 12 2018년 가을 일본 도쿄의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에서 열린 <Catastrophe and the Power of Art>에 오노 요코(Yoko Ono)가 선보인 관객 참여형 작품 'Add Color Painting/Refugee Boat'(1960/2016-2018). Collection of the artist Photo by Koku Keizo. Image Courtesy Mori Art Museum, Tokyo 13, 14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지난해 6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린 <재난>의 전시 풍경. 13번 박경진, 노순택 작가의 작품 ©권오영. 14번 하태범, 장우진, 이보람 작가의 작품이 보인다. ©권오영



precious garden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식물 모티브 주얼리 정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애착,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이비 잎을 다이아몬드로 입체화하고 우아하게 표현한 라베르 드 파리 컬렉션 더블 링 2천만원대 부채꼴, 옐로 골드, 라피드와줄리, 다이아몬드 가 아우라져 산호의 매혹적인 모습을 부각한 키크투스 드 까렐에 네크라스 가격 미정 가브리엘레, 옐로 다이아몬드로 반드넬이가 뿜어 내는 따스한 빛과 생명력을 강조한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 옐로 다이아몬드 파이어플라워 펜던트 9백20만원 티파니, 핑크 골드, 화이트 마다모브릴,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코스모스 비트윈 더 핑거 링 2천7백만원대 반달라브 아젤, 옐로 골드로 구현한 꽃봉오리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사탕에 우아함을 살린 페달 드 까렐과 아브로지 가격 미정 사벨 화인 주얼리, 장원을 기쁨 때 필요한 원예용 도구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레 제스피에클리 드 쇼메 컬렉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물주전자와 이를 감싸는 페어 컷 그린 투르말린을 세팅한 핑크 골드 호스가 매력적인 파페르 드 브로치 3천9백만원대 쇼메, 크리스털과 블랙 오팔, 블랙 다이아몬드가 신비로운 매력을 뿜내는 플라이 바이 나이트 크리스탈 헤이즈 스타트 아이링 가격 미정 스티븐 헬스터, 에디터 이주이



the masterpiece

매종이 지켜온 우아한 디자인과 동시대 문화 예술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결합된 델보 이그조틱 컬렉션.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제품은 특별한 소장 가치를 자랑한다. 1백9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델보는 고유한 유산에 새로운 변화를 가미하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델보 이그조틱 컬렉션을 선보인다. 전통과 기술, 클래식과 과감함, 최상의 품질과 미학적 완성도로 정의되는 이 컬렉션에는 문화 예술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열정이 담겨 있다. 이번 시즌 선보인 델보 이그조틱 컬렉션 블라썸 레이브 라인은 실차미술가 아이웨이웨이(Ai Weiwei)의 작품 꽃에서 영감을 얻었다. 우아한 숙녀의 기품이 느껴지는 시그니처 디자인에 예술적인 감각을 덧입혀 오토 쿠투르 자수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됐다. 정교하게 재단해서 재봉한 악어 가죽에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등 예상치 못한 이질적 소재를 조화해 델보만의 예술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꽃 모티브를 수놓았고, 순수한 화이트 컬러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블라썸 레이브 라인에는 단 1점만 제작하는 블랙 에디션, 한정 수량으로 제작하는 브리앙 MM과 미니 사이즈 버전, 핑 미니 버킷 등 네 가지 스타일로 구성한다. 에디터 이주이



국내에 단 1점만 입고되는 브리앙 블라썸 레이브 MM 29X21.5X13.5cm 5천9백만원대.



ain't got time for that

편안함과 시크함으로 눈길을 끄는 브랜드 '할란앤홀든(Harlan + Holden)',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알렉산드라 파치네티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패션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지난 2월, 현지에서 만난 매력적인 그녀와 나는 친절한 인터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브랜드 스토리.

"우리는 알렉산드라 파치네티(Alessandra Facchinetti)를 할란앤홀든의 첫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고객들이 시간을 절약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컬렉션과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하는 철학을 갖고 있으며, 우리 메시지를 옷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 에마누엘 피네다(Emmanuel Pineda) 회장

2015년 마닐라에서 설립된 할란앤홀든은 최근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코엑스, 롯데몰 수지점 등에 이어 잠실 롯데월드몰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며 한국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구찌, 콰클레르, 토즈 등 럭셔리 패션업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알렉산드라 파치네티가 이전과는 다

른 선택을 했다. 그 자체가 할란앤홀든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화려한 디테일보다는 편안한 실루엣과 볼륨을 지향하는 할란앤홀든의 컬렉션은 단순한 패션과 디자인을 넘어 '타임-세이빙(time-saving)'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콘셉트로 한다. 입을 때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옷, 입고 벗기 편한 옷, 원스텝 착용으로 스타일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옷. 실제로 매장에서 접한 컬렉션은 몸을 감싸는 듯한 편안함과 가벼움,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가 인상적이었다. 알렉산드라 파치네티의 합류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열린 런던에서 직접 만난 그녀는 우아하고, 스마트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는 6월 그녀의 본격적인 컬렉션 'bc'를 선보일 예정으로, 할란앤홀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치게 만든다. www.harlanholden.com



1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차피펠드가 디자인한 할란앤홀든 롯데월드몰 매장. 전세계 리테일 매장 처음으로 태원코트를 사용해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외관과 공간을 완성했다. 2 럭셔리 빅 하우스를 두루 갖춘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라 파치네티. 3, 6 지난 2월 런던에서 열린 할란앤홀든 런치 파티. 4, 5 유라피언 아. 캄의 집을 편안하게 풀어내는 할란앤홀든 컬렉션. 알렉산드라 파치네티의 컬렉션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7-9 시간 절약을 주제로 한 할란앤홀든의 캠페인 '그림 시간이 없네(Ain't Got Time for That)'. 10



interview with... Alessandra Facchinetti

할란앤홀든의 첫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했다. 소감은? 할란앤홀든의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흥분된다. 나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껴왔다. 이 브랜드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관점에 영감과 동기 부여의 기회를 얻는다. 할란앤홀든은 나에게 시간 절약이 필요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여성과 남성성을 위한 데일리 웨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결코 낭비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 리얼 라이프가 된다는 건 나에게 중요한 영감 이 되었다. 이전 경험과 다른 모션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세 가지 키워드로 브랜드를 정의한다면? 시간 절약(time-saving), 침착함(calm), 자극(provocative). 얼마 전 공개한 'Ain't Got Time for That'이라는 캠페인 문구가 참 인상적이다. 브랜드가 강조하는 것이 시간의 중요성인데, 이를 어떻게 디자인에 접목할 생각인가? 'Ain't Got Time for That'처럼 시간 없애기라는 문구에 담긴 사고방식은 지구상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가 아는 세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할란앤홀든의 많은 옷들은 단추나 지퍼로 여닫지 않아도 된다. 칼라는 믹스 매치가 용이한 뉴트럴 계열로 구성했다. 모든 제품은 고객들의 아침 일과와 일상생활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다. 구찌, 발렌티노, 몽클레르, 토즈 등 많은 패션 하우스를 거쳤다. 20년 넘게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일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은? 모든 경험에 내 삶에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많이 배웠고,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장했다. 나는 럭셔리 패션 산업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행보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생각들과 접하며 새로운 가치관과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할란앤홀든은 이제 내 삶의 동반자로 매 순간 함께

하고 있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문을 연 할란앤홀든 본사는 현재 서울에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전역에 걸쳐 20개의 매장을 운영하지만, 아직 서구 패션업계에서는 브랜드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처음 직책을 제안받을 땐 어떤 장에 이입했는가? 지금 나는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모험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것은 나의 꿈이자 내가 할란앤홀든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할란앤홀든의 철학은 내가 그동안 해온 일과는 조금 다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세계로 나를 끌어들었다. 또 아시아 사람들과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아시아는 모든 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고 창의력, 기술력, 트렌드에 관해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며, 나는 그 에너지를 사랑한다. 브랜드 철학인 '시간 절약'은 매우 현대적이고 시크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것을 완전히 존중한다. 영감은 주로 어떻게, 어디에서 얻나? 영감이 이름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적인 일,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방식에서 영감을 얻는다. 또 매년 새로운 세대를 관찰한다. 그들의 스타일도 변화무쌍한 생활양식은 매력적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는 6월에 공개될 컬렉션 'bc'가 매우 기대된다. 조금만 소개해 달라. 9는 컬렉션의 숫자를 말한다. bc는 일주일에 7일 유니폼처럼 매일 입을 수 있는 컬렉션을 의미한다. 도시적인 룩이 1년에 두 번 나오며 아홉 시즌째 선보인다는 의미다. 여행과 출장이 잦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가깝고 여유 있게 해줄 캐비닛웨어(Cabinwear)를 6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모든 컬렉션에는 제품마다 고유 번호를 매길 예정이다. 디자이너인 한테 여성을 위한 원스텝 드레싱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어 하루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옷의 볼륨 역시 늘 연구하고 있다.



unveiling THE STORY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알렉산드라 맥퀸의 2020 S/S 컬렉션 스토리 솔더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0 프리스프링 컬렉션을 통해 공개한, 주얼 사철 백을 잇는 알렉산드라 맥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스토리 백. 데일리 & 이브닝 룩을 이루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은 이가방이 S/S 시즌 색다른 매력의 솔더백 스타일로 출시된다. 지난 9월 열린 컬렉션 쇼 런웨이를 유상히 지켜봤다면 이미 낯익을 터. 꽃 지수를 놓은 미색 가꾸러미 레이스 드레스, 아일릿과 레더 스트림을 매치한 강렬한 데일링 레더 코트 등 화려하고 정수적인 룩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고, 모자라거나 남치 않게 근사한 룩을 완성한 주인공이다. 가로로 긴 직사각형 보디와 브라스 마감 처리한 클래식 머시한 체인이 돋보이는 스토리 솔더백은 연출 방식 또한 매력적. 전연의 모던한 메탈 핸들을 기존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고안해 손을 끼워 넣어 클라킥처럼 들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측면에는 솔더 체인을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가죽 고리를 부착했다. 스웨이드 가죽 처리된 내부에는 하나의 대형 수납공간, 가죽 카드 홀더, 지퍼 포켓 등을 더해 아낌없이 자라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는 동시대 여성을 위한 실용적 면모까지 겸했다. 딥 아이보리 또는 블랙 컬러의 카프 스킨 스토리 솔더백은 가죽 매들, 골드 아일릿 장식을 더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도 선보이며 차별점과 전가할 예정이다. 문의 02-6905-3472 애플 아이비

딥 아이보리 컬러 스토리 솔더백 2백44만원, 가죽 매들로 장식한 블랙 컬러 스토리 솔더백 3백44만원 모두 알렉산드라 맥퀸.





‘아름다운 시대’의 가치를 돌아보다 ②

Mucha &

배즈 루어먼(Baz Luhrmann) 감독의 2001년 작 영화 <몰래 루주>를 보면 여주인공 사틴(니콜 키드먼)의 분장실 거울에 당시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의 사진이 붙어 있는 장면이 나온다. 사틴은 언젠가 자신의 롤모델인 사라 베르나르에 버금가는 여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실제로 사라 베르나르는 벨 에포크 시대가 낳은 불세출의 아티스트로 ‘사회현상이나 다름없었다. 단순한 스타 여배우를 넘어 당대 최고의 셀럽이자 사교계의 여왕 같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당연지사. 이렇듯 화려한 명성 뒤에는 불우한 환경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한 강한 집념과 의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를 넘어 전 유럽과 미국에까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여성에게 선구자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던 카미유 클로델, 시도니-가브리엘 콜레트, 마리 로랑생, 가브리엘 샤넬처럼 성별을 떠나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 한 여성들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반추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한 듯하다. 그런데 사라 베르나르가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벨 에포크를 상징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를 스타로 등극시킨 주인공이라는 점도 한몫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계기적인 협업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19세기가 낳은 유럽 최고의 스타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1844~1923).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단지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미모만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가 아니었다. 고전 연극의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비토르 위고, 에밀 졸라, 오스카 와일드처럼 당대는 물론 지금도 회자되는 걸출한 작가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작품에서 활약했고, 성별을 넘나드는 배역에 도전해 예술가들의 무궁무진한 대중의 슈퍼스타로 추앙받았다. 대문호 비토르 위고를 예로 들자면, 그는 ‘신성한(divine)’, ‘황금의 목소리를 가진 여인’, ‘연극의 여제 같은 수석어를 아낌없이 동원했다. 당시 사람들은 왜 그토록 이 배우에게 열광했을까? “그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과물이었다. 대중의 숭배를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그녀가 끄집어낸 험릿과 사랑에 빠지고, 남성들은 그녀가 연기하는 애절한 춘희(la dame aux camélias)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극작가 모리스 로스탕(Maurice Rostand)의 설명이다. 사라 베르나르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정자기든 예술가든 각 분야에 걸친 당대 최고의 인물들을 만나 활발히 교류했다. 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영리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극장을 소유하기도 했던 그녀는 수많은 아들을 고용했고, 전용 요리사, 비서 등 많은 인력을 이끌고 무려 70개의 루이 비통 트렁크를 대동한 채 호주와 북남미, 러시아 등 지구촌을 맹렬히 누비며 투어를 다녔다고 한다. 글로벌 무대를 섭렵한 최초의 월드 스타이자 비즈니스 우먼이라 할 만하다. 그녀는 인기란 스쳐 가지지만 이미지는 대중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다며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고, 사진과 영화 같은 새로운 시각 매체 앞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녀의 체취가 느껴지는 드레스와 액세서리, 그리고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보다 보면 자신의 이미지가 예술가의 관점과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소비될지를 1백 년도 더 전에 내다본 선경지영이 사투 놀란다.

보헤미안 시골 소년 무하가 품은 꿈, 그리고 도전

우리에게는 그룹 퀸의 노래로 익숙한 ‘보헤미안 랍소디’에서 ‘보헤미안(Bohemian)’은 프랑스어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방랑자’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다. 또 체코공화국 서쪽의 보헤미아 지방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 반대편 모라비아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반치체에서 태어난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 1860~1939)는 거의 일생에 걸쳐 방랑자처럼 살았다. 유년 시절, 소년 성가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무하의 인생에 훌륭한 기초를 닦아준 듯하다. 당시 상류층에만 허락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가대에 들어가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노력과 성실을 겸비해야만 예술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을 깨달았다. 이와 동시에 뛰어난 재능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역시 일찍이 맞닥뜨렸다. 야속한 변성이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고향의 일상은 이미 넓은 세상을 경험한 소년 무하에게는 지루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무하의 마음은 줄곧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도시를 향했다.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여행에서 바로크풍 전장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프라하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대신 비엔나의 한 공방에 일차리를 얻어 무대미술을 접한 그는 야간에 드로잉 수업을 들었다. 비엔나의 다채로운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접하며 식견을 넓힌 그는 후원자를 만나 경력을 쌓는 동시에 독일 뮌헨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행운을 누린다. 1887년, 무하는 드디어 당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들던 ‘꿈의 도시’ 파리로 간다. 파리에서의 초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후원자가 송금을

Sarah Bernhardt

중단하는 바람에 학업도 포기하고 고달픈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삽화가로 일하게 됐는데,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특히 그림이라는 공간대로 친해진 동료들과 선한 이웃 덕분에 안락기는 자신의 예술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추고 배고픈 시절, 아틀리에를 같이 쓸 정도로 특별한 친분을 맺은 친구들 중에는 첫 번째 타히티 여행에서 막 돌아온 폴 고갱도 있었다.

스타 탄생으로 이어진 연극 포스터

1894년 말, 30대 중반의 무하에게 삶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난다. 파리의 르메르시에(Lemercier) 인쇄소 담당자는 새해에 무대에 올릴 연극 <지스몽다(Gismonda)>의 포스터 디자인을 급히 교체해달라는 사라 베르나르의 전화를 받고 고심한다.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버린 상황이라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침 인쇄소에서 성실히 교정 작업을 하던 무하에게 이 작업을 맡긴다. 그런데 며칠 뒤, 완성된 포스터를 보고 그 기묘한 스타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대부분의 포스터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고 인물 묘사는 과감한 생략으로 특징만 드러내는 것이 추세였다. 그런데 무하의 포스터는 완전히 달랐다. 일단 2m를 넘는 거대한 크기부터 색달랐다. 기존 포스터 사이즈를 상하로 나눠 세로로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색상도 그간 포스터에서는 기피하던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 청갈색, 녹색 등을 깔끔하게 조합했다. 동방의 모자이크를 연상시키는 신비한 비잔틴풍의 이색적인 포스터에서 더 놀라운 점은 늘 젊고 아름다운 존재로만 그려졌던,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50대에 접어든 사라 베르나르의 모습이었다. 무하의 포스터 속에서 그녀는 성화(聖畵) 이미지 같은 숭고함이 깃든 원숙한 여인이었다.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성스러운 묘한 조화가 돋보였다. 그러나 인쇄소 담당자는 이 포스터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다칠질된 대배우가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심미안이 뛰어난 사라 베르나르는 이 포스터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성화하고 있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강렬한 영혼의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 화가를 불러달라고 했고, 긴장된 표정으로 극장에 들어선 무하를 보고는 감동의 탄성을 질렀다고 전해진다. 이 탄성은 곧 무하의 무명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사라 베르나

르는 자신의 연극 포스터는 물론이고 무대의상과 액세서리, 무대 디자인 등을 도맡는 전속 계약을 제안했다. 대중도 무하의 솜씨에 매료됐다. ‘무하 표’ 사티의 모습은 그녀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할리우드가 생기기 전 구미에서 탄생한 최초의 월드 스타가 된 데는 무하의 포스터가 미친 영향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들은 후원자와 예술가인 동시에 예술가와 뮤즈이기도 한, 비라직한 상생의 관계였던 셈이다.

벨 에포크의 아이론에서 체코의 국민 화가로

파리의 황금기에 무하의 인기는 대단했다. 광고, 잡지 커버, 달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곽이 쏟아졌다. 무하는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여성 외에도 꽃, 잎사귀, 나뭇가지, 동물 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주목한 모티브를 자주 사용했다. 유기적인 장식성을 강조한 탐미적인 이른바 ‘무하 스타일’은 파리 아르누보의 대명사가 된다. 광고지만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무하의 광고 포스터는 특기할 만하다. 상품 대신 시선을 잡아끄는 아름다운 여인을 부각하는데, 이로써 이 상품을 쓰는 당신도 멋져 보일 거야 또는 ‘이런 멋진 여인도 이 물건을 쓰는 당신에게 매료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광고 같은 현대성이 돋보인다. ‘상품의 향연이 펼쳐진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스타로 단연 무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훗날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그의 또 다른 업적으로 1902년 발간된 <장식 자료집(Document Décoratif)>이 꼽힌다.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담고 그 테크닉까지 상세히 주석을 달아 설명한 이 책은 대중이 보기에도 매력적이지만 특히 화가, 장인 같은 전문가 집단에는 ‘교과서’의 무게를 지닌 귀중한 자료였다.

벨 에포크 시대가 저물면서 미국에 본격 진출하기로 한 무하는 1906년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진다. 그리고 1910년에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사실 그에게는 늘 강대국에 짓눌려온 자신의 조국과 러시아에서 발칸반도에 이르는 넓은 땅에 흠어져 각기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사는 슬라브 민족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에서 활약하는 동시에 슬라브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하는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나머지 인생을 바친다. 슬라브족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의 역작 ‘슬라브 서사시(The Slave Epio)’도 그 결과물이다. 상업적인 화가의 상징 같았던 무하가 20점에 이르는 연작 ‘슬라브 서사시(1911~1928)의 완성’에 혼을 담아 헌신한 모습에서 한 인간의 예술 여정이 새삼 위대하게 느껴진다. 현재 서울 삼성동 마야아트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알폰스 무하展>에서는 세속과 성스러움을 넘나드는 사라 베르나르의 압도적인 자태를 담은 파리 시절 작품은 물론, 슬라브 서사시 등 무하에게 ‘체코 국민 작가’라는 칭호를 안겨준 후기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오는 4월 5일까지). 전시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와도 겹치는 지점이 있는 슬라브 서사시 같은 작품을 바라보노라면 문득 안토닌 드보르자크(Antonín Dvořák)의 슬라브 무곡이 듣고 싶어진다.

글 심우현(프랑스어 저번호) | 자자 | Edited by 고성연



1 서울 삼성동 마야아트뮤지엄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리는 <알폰스 무하展> 풍경. 체코의 테니스 스타 이반 렌들(Ivan Lendl)이 수집한 알폰스 무하의 걸작들을 통해 작가의 역작을 시대별로 볼 수 있다. 2 <라 플뤼메(La Plume)> 잡지를 위한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1896). F. 샹프뉴아, 이반 렌들 컬렉션. 3 알폰스 무하, <라 나투르(La Nature)> (1899~1900). 청동, 자수정, 사카이 알폰스 무하 미술관. 4 벨 에포크 시대 알폰스 무하의 모습.



5 알폰스 무하에게 완성상태의 전황점을 마련해준 연극 포스터 <지스몽다(Gismonda)>(1894). 리토그래피(컬러 복판화), 종이, 이반 렌들 컬렉션. 6 알폰스 무하, <모엣 & 샹동(Moët & Chandon)>(1899), 삼배인 광고, 리토그래피(컬러 복판화), 종이, 이반 렌들 컬렉션. 1, 2, 4, 5, 6 번 사진 마야아트뮤지엄(myartmuseum.co.kr) 제공. 7 프랑스 여성 화가 루이즈 아베마(Louise Abbéma)가 그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1909). 파스텔, 종이, 에펠프 사립 미술관. 8 연극 <테오도라(Theodora)>에서의 사라 베르나르. 카타리네, 사진, 다나엘 라우이유 컬렉션. 9 1890년에 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나엘 라우이유 미백 파우더(Diaphane Face Powder) 광고. 알프레드 클라레(Alfred Clary)의 복판화, 다나엘 라우이유 컬렉션. 사라 베르나르는 이 시대에 이미 자신의 명성을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했다. 사라 베르나르를 모델로 한 ‘샬루 미우’와 같은 상품도 ‘송혜교 쿠션이모티프’가 전지현 샵무 같은 개념을 연상시킨다. 7~9번 사진 일본 쇼토 미술관(The Shoto Museum of Art) 제공.



그레이 트랜치코트 9백50만원,
재킷 4백59만원, 셔츠 가격 미정,
팬츠 1백65만원,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타이 가격 미정 모두 **바버리**,
선글라스 23만원 **아이비즈아이**.

카키 장포 슈트 3백10만원,
화이트 스니커즈 1백10만원,
벨트 59만원 모두 **앤디**.



NEW MEN

루스한 실루엣, 비비드한 컬러,
자유분방한 믹스 매치...
그 어떤 경계도 뛰어넘는
2020 S/S 시즌 남성복 컬렉션.
photographed by **ahn yeon hoo**



블랙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오렌지 니트 톱 2백76만원, 블랙
레더 쇼츠 2백98만원, 블랙 슬림은
2백71만원일 모두 보테가 베네토.



프린트 셔츠 1백55만원,
화이트 레더 톱 3백19만원,
블루 팬츠 1백29만원 모두
살바토레 페라기오.



체크 코트, 버건디 카디건,
블랙 팬츠, 옐로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선글라스 19만8천원
아이비즈아이, 옐로 재킷
2백2만원, 스트라이프 셔츠
74만원, 옐로 팬츠 1백33만원,
블랙 부츠 가격 미정 모두 **구찌**.



앞도림러 나일론 개버딘 재킷
가격 미정, 블랙 셔츠 가격 미정,
블랙 코튼 차노 비유다 가격
미정, 클라우드 바스트 스니커즈
1백20만원대 모두 프리다.



그레이 재킷 4백55만원,
퍼플 컬러 셔츠 83만원, 핑크 컬러
팬츠 1백50만원, 화이트 스니커즈
1백64만원, LV 체인 링크 목걸이
1백45만원 모두 루이 비통.

헤어 권도연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이상진, 정원재, 김형권, 김준수,
이민석, 오시원, 윤원조, 신지홍
어시스턴트 김원민, 김승준
스타일리스트 채완석



에르메스 02-542-6622
실버트레 레라카모 02-3430-7854
구피 1577-1921
보테가 베네통 02-3438-7682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리다 02-3218-5331
켄디 02-2056-9023
버버리 080-700-8800
아이비즈아이 070-4416-2135



show your flag at florence

이번 시즌 피티 워모(Pitti Uomo)의 주제는 깃발. 14세기 성벽으로 둘러싸인 포르테자 다 바소(Fortezza da Basso)는 세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모라테이 아이디어로 새로운 관점과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들은 왜 조끼를 입을까

현대사회에선 재킷과 바지를 조끼와 곁들여 입는 수트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끼를 입는 데 주저함이 없는 영국인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일까?

나는 눈앞에 활짝 열린 작업장 창 너머로 비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메이페어의 짧은 거대한 자다의 리듬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으로 가득하다. 양복지를 누르는 열과 습기가 만들어내는 비릿한 냄새, 비 오는 날 런던 특유의 습한 느낌은 작업 도중에 이따금 나의 시선을 창밖으로 향하게 한다. 시선이 허공으로 옮겨 갈 때쯤엔 또다시 비는 질을 하고 있는 조끼에 대한 잡념이 꿀꿀해졌다. 재킷이 끝나고 봉제를 기다리는 옷감 뭉치 중 조끼가 제일 얇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왜 이토록 조끼를 사랑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탈리아 작가 알베르토 모라비아(Alberto Moravia)의 말이 떠오른다. "조끼같이 이용도가 분명한 옷은 바로 그 필요성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 모라비아의 표현대로 그 시절엔 조끼 착용이 필수였기 때문에 별 의미를 찾기 어려웠나 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그의 의견에 온전히 찬성하진 못하겠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다리에만 등장하는 유물이 되었고, 어떤 개종에는 장롱 속 개개목은 장물이 되었으며, 현대에겐 예술이 되었으니.

영국인들의 조끼 문화

그렇다면 왜 지금도 이들은 여전히 조끼를 입을까? 기술러 올라가보면 어느 나라나 영국의 조끼와 비슷한, 양 소매가 선풍형 형태의 의복은 존재했다. 조끼의 어원이 된 남유럽의 자크(jaque), 프랑스의 질레(jilet), 인도의 반얀(banyan) 등이 그것이다. 한복에도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배자는 좌우 소매가 없는 덧옷이다. 문화권마다 대표적인 조끼는 존재했지만, 영국인들만큼 아직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이들은 드물다고 생각된다. 본드 스트리트와 제인 스트리트의 여러 남성복 가게 쇼윈도에는 꼭 맞는 조끼를 입고 서 있는 매너가 즐비하다. 사냥 같은 교외 활동에 필요한 클래식 레저 웨어를 파는 곳에는 헌팅 장화와 피셔맨 베스트가, 포일 웨어를 파는 곳에는 실크로 만든 팬츠만 디너 베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영국인은 복장에 민감한 민족이다. 영국 사회에서 서츠 차림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서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남성 서츠는 일종의 속옷에서 발전된 것이어서 몸통을 제외한 목과 소매 장식만 발달해왔다. 즉 서츠 차림으로 몸통을 드러내는 것은 내의를 내보이는 걸레인 셈이니 재킷이나 조끼로 가려야 한다는 뜻이다. 지름이 비교적 개편적인 봉장 문화가 정착되어 서츠 차림이 일반화되었다고는 하나, 이 옷차림을 보일 수밖에 없을 맨저 살레를 표현하고 양해를 구한다. 조금 과장하자면 조끼는 당연히 재킷을 벗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조끼를 여전히 애호하는 영국인들을 혹자는 허례허식의 민족이라 폄하할 수도 있겠다. 이들의 역사적 관습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찰스 2세는 1660년대에 세 번의 큰 국난을 겪는데 흑사병으로 알려진 런던 대역병과 런던 대화재, 그리고 의회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번한 재정 상태로 치른 네덜란드와의 전쟁이다. 그는 국외의 철박한 자금과 과다수입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봉장 개혁을 단행했다. 프랑스 망명 중 헝가리인과 터키인이 즐겨 입던 조끼를 들여와보고 그것을 수입했고, 웨이스트 코트라 불렀다. 1666년 10월에는 궁의 공식 복장으로

도입해 거주장스럽고 화려한 이전의 복식을 청산하고 조끼를 포함한 스퀘어넥을 정착시켰다. 이때부터 영국인들에게 조끼 착용은 일종의 은밀한 개성 표현 수단이었으며 습관적 행동이 되었다. 마치 낮이 되면 습관적으로 차트를 우레내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재킷에 먼저 입는 옷으로 조끼 대신 카디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체 구속에 불편을 느껴 훌륭한 옷을 찾는 노인 같기도 하고, 오래된 유니폼을 입은 취향 없는 남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조끼를 제대로 갖춰 입으면 확실히 남성이 대두되는 것 같다. 옷을 만드는 입장에서 조끼는 신체에 꼭 맞게 재단하는 옷으로, 비스포크의 가공 과정에도 재킷이나 바지보다 좀 더 세밀한 집중을 필요로 한다. 옷을 여겼을 때 가슴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하면서 어깨배를 완벽히 커버하고, 요추에서 정확히 끝나 둔부의 미감을 확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끼는 남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다른 액세서리의 효과를 배가하기도 한다. 조끼 여름으로 바키 매듭을 풍성하고 단단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티아핀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훨씬 더 멋스럽다. 게다가 예전엔 조끼가 회중시계를 수납하는 역할을 하면서 단추구멍 사이 체인 홀로 빠져 나온 도그핀 시계줄로 재력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제는 회중시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냥 로의 비스포크 하우스에서 만드는 웨이스트 코트에는 시계줄을 위한 체인 홀을 만들기도 한다).

옷을 입는 것은 체면을 뜻하는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서 않는 포일 웨어는 그런 이유로 엄격하게 드레스 코드에 정해져 있다. 아침과 저녁 예정의 최고봉인 모닝 수트와 테일 코트 차림은 베스트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로열 애스콧이나 바깥길 공의 이런 행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모닝 코트 차림에서 조끼는 누런 오일 색과 옅은 회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때론 핑크와 하늘색 같은 파스텔 톤으로 실험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연미복 특유의 여미 없는 재킷 안에 입는 흰색 조끼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 기억 속 조끼를 잘 입는 남자를 꼽으라면 1968년 영화 <토마스 크라운 에피소드>의 스티브 맥킨이 떠오른다. 대다수 사람들이 조끼를 포함한 스퀘어넥을 잘 갖추고 있는 영국 남자로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겠지만, 그런 스타일은 조금 식상하다. 이제는 너무 전형적이라고 할까. 오히려 트윈드 재킷에 점퍼 차림으로 맥신 신을 연가하는 터프 게이 맥킨이 극 중 조끼를 갖춘 차림을 선보였을 때 야생에서 인정을 썩 운 듯 아성과 이성이 교묘히 결합된 신념이 느껴졌다. 홀어남의 싱글 브레스트지만 끝부분이 각지지 않고 더블브레스트처럼 허리를 따라 일직선을 이루는 디자인이라 더욱 특별했다.

안간이 옷을 걸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내부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 전자는 실용, 후자는 차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조끼는 그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에 충실한 의복 중 하나다. 조끼를 사랑하는 영국인들의 개인적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내부의 욕망에 따라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조끼를 입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영국인들은 오늘도 그렇게 조끼를 사랑한다. 글 김동현(현인 사설) 로의 한국인 테일러 | edited by 장라윤



Think Green
이번 시즌 피티 워모는 남성복 시장 동향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했다.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타협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소. 매일 2회에 걸쳐 '피티'에서 신소재에 이르기까지(Land Flag: From Waste to New Materials)라는 주제 아래 디자인 비평가 겸 큐레이터 인질라 루이와 회담을 열었다.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 파비오 페리, 탐험가이자 디자이너 알렉스 벨리니, <월렛> 매거진 창립자이자 디렉터 엘리스 바이 올슨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관점과 접근 방식을 공유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Only here at Pitti Uomo

피티 워모는 매 시즌 디자이너를 초대해 스페셜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초대받은 디자이너들은 스타리아 노벨라 대성당과 같이 신성물가치의 장소에서 패션쇼를 선보일 수 있는 영예를 누리다. 이번 시즌에 초대받은 질 샌더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크 미어는 "피렌체에서 쇼를 여는 것은 영광이자 영광이다. 아메리칸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시 에와 나는 피렌체에서 처음 만났고, 그 당시에는 훗날 여기서 함께 쇼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기회는 정말 특별하다. 우리는 이 예술적인 도시와 피티 워모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단순하고 복잡한 패션 콘셉트를 통해 정체성과 기능성이 혼합된 심플렉스(simple+complex) 패션을 선보인 뉴욕 기반의 유니섹스 브랜드 테라, 램프 아이 덴티피칸 이름으로 성별에 대한 사회 관습에서 벗어나 클래식과 새려된 모던리티의 조화를 보여준 스테파노 팔라티, 모델이 걸어나오는 키즈 런웨이 형식에서 탈피해 독립적으로 구분된 팔라조 게리니(Palazzo Gerini)의 각 방을 돌아다니며 클래식 연주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브리오니 창립 75주년 기념 프레젠테이션 등 초대받은 게스트 디자이너들은 피렌체의 예술적 유산에 경의를 표하며, 르네상스의 숨결을 머금고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에디터 이주이(피렌체 현지 취재)



editor's Pick

일상에 활기를 더해줄 스프링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매트 립스틱 루즈 아쉬 85** 코트 메스 뷰티의 첫 번째 컬렉션. 무경을 담은 코트스 자체만으로 훌륭한 오브제이다. 가족에 사용하기 위해 1925년에 개발한 컬러 루즈 아쉬는 갈색을 살짝 가미한, 버건디에 가까운 짙은 레드. 한번 바른 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입술 전체에 넓게 퍼주면 지속력이 더 높아진다. 3.5g 8만8천원. 문의 02-310-5174 *_by 에디터 정리운*

몰레스트라비나 패션이온즈 인텐스 볼륨 마스크 #1 네로 사일리아 클레아리스한 블랙 & 골드 파우치처럼 속눈썹을 화려하게 연출해주는 마스크다. 롱 레스팅과 볼륨 업 효과를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도톰한 쌍꺼풀 모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일간 귀찮은 포물리를 잊어버릴 때이다 속눈썹이 드라마틱하게 힘을 받는다. 인형 같은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은 이에게 제격. 7ml 6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혜미*

클라린스 엑스트라 피딩 피도 세럼 스킨과 수분 크림만 바르는 단순한 스킨케어 루틴을 고수했지만, 배가 자르거나 마스크 자국이 사라지는 속도가 차츰 느려져 탄력 강화 제품을 추가했다. 화이트 루민, 캄카루 플라워, 블루 야기베 추출물이 어우러져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꾸준히 바르기를 잊지 말고, 피부에 건강한 활력이 되는 듯하다. 산뜻하게 스며드는 가볍고 묽은 제형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상쾌로운 향도 마음에 든다. 50ml 13만8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이주이*

에어린 와이드 제라늄 트라베 스프레이 갈라뿔한 아향화 일라스트가 마음을 빼앗는 이 트라베를 피부에 울퉁 내내 파우치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싶은 이들에게 좋다. 첫인상은 다소 강렬한 편. 진하게 농축된 꽃향기로 사려깊지만 이내 싱그러워져, 워터 레몬 노트 파우치에 들뜬 한가운데 서 있는 듯 상쾌한 기분을 전한다. 열이 나는 단어가 머릿속 가득 떠오르는 자연의 향 그 자체. 7ml 3만8천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혜미*

데코르테 이드밴드 아이피스 빛꽃 에디션 2020 정자는 개관하게 얽매고, 주름은 애연하게 따르는, 미백과 안티에이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중 기능성 인종 제품이다. 아침마다 눈가, 팔자 주름, 이마, 미간 등의 부위에 부분적으로 바르고 있는데, 시트러스와 풀 내음, 그리고 우디 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편안하다. 20g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정리운*

시슬리 하이 리추얼 바이 시슬리 컬러 퍼밍 샴푸 영색 모발 전용이지만, 허브스 키스 꽃과 허브리피씨 추출물, 비타민 B, 등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자연미인 에디션도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 잦은 드라이로 뽀뽀해진 모발을 윤기를 더해 주고 탱글탱글한 볼륨감을 선사한다.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은 친화 제품이다. 200ml 8만2천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이주이*

나스 하이 피그먼트 블레이어 아이라이너 #반보 크리미한 텍스처가 특징인 짙은 초콜릿 컬러의 블레이어이다. 평소 아이라이너를 그리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엔 이두 온 세대로 살짝 연출하고 싶는데, 이 제품만큼은 출시 이래 종종 사용하는 중. 물과 유분도 강해 장면을 재현도 번지는 일이 없고, 손가락으로 쓱쓱 문질러도 세도처럼 퍼버리는 눈가에 자연스럽게 길감을 더할 수 있다. 1.1g 3만3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혜미*

반클리프 아펠 부와 디오드 오드 파퓸 부드러운 이온드 에이드를 시작으로 사야드 에센스와 달콤한 바닐라로 이어지는 따뜻한 매력적인 향을 풍긴다. 봄이 되면 시트러스 계열의 가볍고 상쾌로운 향이 손이 가기 마련이지만, 우디 계열에도 무겁지 않아서 충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부러린들을 돕는다. 75ml 18만원. 문의 080-800-8809 *_by 에디터 이주이*

샤넬 플로르 데 에메르빌 컬렉션 레 캐르 드 옹블 #358 오빌 드 로 깊은 장에서 캐어나 봄을 맞이한 아메리칸 자연을 노래하고자 하우스를 상징하는 카멜리아 꽃 모티프를 적용한 4구 세트. 그중에서도 핑크에 가까운 연한 피치 컬러 세드와 골드 & 핑크 필 하이리터는 계절에 꼭 어울리는 화사한 봄을 완성하기 위해 제격이다. 2g 8만2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이혜미*

아름 시슬라임 리플렉싱 나이트 마스크 가벼운 젤 크림 타입의 영양 마스크. 얼 굴과 목에 충분히 바르고 자면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세안 후 반짝반짝 윤이 나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수분을 채워주는 영양을 공급해 피부를 받고 고르게 가려준다는 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을 듯. 60ml 15만원. 문의 070-4870-6358 *_by 에디터 정리운*

실론 인비너리 레이저 제모기 가벼운 면도 후 모근에 레이저를 쬐어주면 광 에너지가 모낭을 무력화해 털이 자라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 단거리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 미세한 진동까지 말끔하게 정리된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도 간편해 FDA, CE,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효과를 인정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9만원. 문의 080-246-1234 *_by 에디터 이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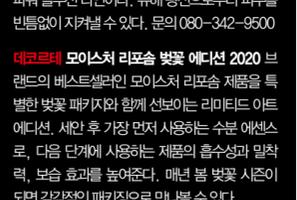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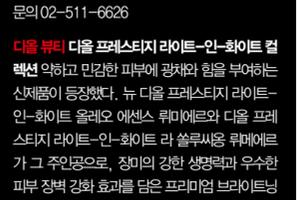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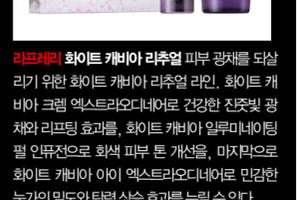
룩사몽 2020 체리 블러쉬 베스 & 사워 젤 매력적인 향수도 좋지만 몸에서 나는 불편한 냄새를 제거하고 피부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성대한 밤꽃, 싱그러움 프라피자, 상큼한 체리가 어우러진 감미로운 향이 하루 종일 온몸을 감싼다. 보디 클렌저나 거품 목욕제로 사용 가능인데, 자극이 적은 식물성 거품 인자를 함유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이다. 250ml 2만9천원.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이주이*

팬탈리온스 더 페이스버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흠뻑 퍼지는 꽃향기, 즉 플러시 마스크 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미모사, 만다린, 바이올렛, 프라피자 향이 섞였는데, 바람 잔잔한 맑은 날 들꽃향기 가득한 시골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다. 100ml 27만원. 문의 02-3213-2057 *_by 에디터 정리운*



SHOWROOM

BEAUTY



디올 뷰티 디올 프레스티지 라이트-인-화이트 컬렉션 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광채와 힘을 부여하는 신제품이 등장했다. 뉴 디올 프레스티지 라이트-인-화이트 울레오 에센스 퀴아에르와 디올 프레스티지 라이트-인-화이트 리 솔루시옹 퀴아에르가 그 주인공으로, 장미의 강한 생광력과 우수한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담은 포도피임 브라이트닝 파워 솔루션 라인이다. 유해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진동없이 지켜낼 수 있다. 문의 080-342-9500

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프소스 빛꽃 에디션 2020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모이스처 리프소스 제품을 특별한 빛꽃 패키지와 함께 선보이는 리미티드 이트 에디션.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수분 에센스로,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흡수성과 밀착력, 보습 효과를 높여준다. 매년 봄 빛꽃 시즌이 되면 감각적인 패키징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568-3111

디올 뷰티 디올 캔버스 백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레디디 디올 백이 전체를 자수로 장식한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다. 등-무릎 역은 듯한 패턴을 기반으로 한 인체적인 톤온트 자수 장식과 디올 로고 금속 키링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준다. 화사하고 기본적인 컬러 팔레트로 구성해 다가오는 봄, 여름 데일리 백으로 들고 다니기 좋다. 문의 02-3480-0104

토즈 트라이앵글 장식 스트랩과 간결한 실루엣을 추가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진화한 보디 파우치를 선보였다. 스트랩을 이용해 어깨에 메거나 벨트 백처럼 착용하는 등 그날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부드러운 나뭇 가지와 더불어 페이퍼 나뭇잎 등 여러 소재를 출시한다. 문의 02-3438-7682



가르피에 클라쉬드 가르피에 클라쉬드 가르피에 스티드 장식이 있어 날카로운 보이지만 착용감이 편안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이지만 우아함을 뽐낸다. 이번 시즌에는 화이트 골드 버전과 아이조니트를 세팅한 2가지 신제품 라인을 출시했다. 그중 화이트 골드 버전은 친화적인 컬러로 남성들도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부티크에서 판매한다. 문의 1566-7277

에거 르콜트르 리베르스 컬렉션 인그레이빙 온라인 사이트 리베르스 컬렉션은 다이얼 뒷면에 특별한 메시지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시를 리베르스해 보고 견적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미국 배우 이만다 사이프리드는 반려견 핀의 얼굴을 다이얼 뒷면에 새겨 애정을 드러냈으며, 항상 함께하는 행운의 부처기도 길고 언급했다. 문의 engraving.jaeger-lecoultre.com

티쏘 러블리 스퀘어워 지름 2X2cm의 심플하고 작은 다이얼이 마치 주얼리를 착용한 듯한 느낌을 주는 러블리 스퀘어워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에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독특한 스퀘어 커빙 다이얼



자침시 ID93 핸드백 ID93 백은 매들 디테일과 수작업으로 만들어 제작한 스트랩 장식이 독특 튀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체로 온 컬러 지문뿐 아니라 천연 리피어 이자 섬유 버전도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착각 가능한 2가지 버전 스트랩으로 실용성과 대체로운 매력을 더했다. 문의 02-546-2790

막스마라 팔스타 코튼 트랜치코트 페미닌한 분위기를 풍기는 팔스타 코튼 트랜치코트는 넓은 칼라와 허리 라인을 강조한 실루엣이 포인트다. 허리 부분을 벨트로 여며 풍성한 A라인 원피스처럼 연출 가능하다.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 실용적이며,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으로 보온성을 높여 환절기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다. 문의 02-3449-3450

보태가 베네타 보디 파우치 기존 파우치에 트라이앵글 장식 스트랩과 간결한 실루엣을 추가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진화한 보디 파우치를 선보였다. 스트랩을 이용해 어깨에 메거나 벨트 백처럼 착용하는 등 그날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부드러운 나뭇 가지와 더불어 페이퍼 나뭇잎 등 여러 소재를 출시한다. 문의 02-3438-7682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러스 슬림라 카디건 스웨터 상단과 하단이 각기 다른 짜임 방식으로 이 재킷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셔츠나 티셔츠, 얇은 스웨터

이 돌보이는데, 여성스러우면서 대담한 매력을 지녔다. 다가오는 화이트데이 선물에도 적합하다. 문의 02-543-7685

다이아나 미모사 플렉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모사꽃을 정교하게 형상화한 다이아나 미모사 컬렉션은 우아하고 화사해 착용하면 기분 전환이 될 듯하다. 18K 핑크 골드 총 2.137캐럿의 라운드 컷 브라운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색석에 다양한 커빙 기법을 사용해 대체로운 매력이 넘는다. 문의 02-515-1924

불가리 비제르윈 락 기존 비제르윈 디자인에 스티드를 더한 비제르윈 락은 1980년대 선보인 불가리 헤리티지 제품. 12시 방향에 자리 잡은 문패로즈 디스플레이가 시사를 사로잡는다. 새틴 마감의 베젤에는 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에도 12개의 주얼리를 매혹했다. 문의 02-3440-5876

론진 마스터 컬렉션 에뉴얼 캘린더 클래식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에뉴얼 캘린더 워치는 기존 마스터 컬렉션에 달을 구분하는 에뉴얼 캘린더 기능을 더했다. 별도 조정

보태가 베네타 등과 레이어드해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기에도 좋다. 공식 온라인몰과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러스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2052-8822



IWC 포르토티모 오트메틱 워치 37방향을 빛나는 달과 별을 시계에 표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제품. 12시 방향에 자리 잡은 문패로즈 디스플레이가 시사를 사로잡는다. 새틴 마감의 베젤에는 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에도 12개의 주얼리를 매혹했다. 문의 02-3440-5876

가르피에 다이아나

부웨론



FASHION

JEWELRY & WATCH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현대 무역센터점
신세계 강남점 - 본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1668-1906